팍팍한 삶에 개인회생·파산 신청 봇물

광주·전남 4년새 10배 늘었다

파산 52.4% 면책 판정

서민들의 경제사정이 악화하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최근 4년간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 고법·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한성(한나라당) 의원은 "광주·전라·제주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광주지법의 경우 일정 규모의 채무를 갚으면 신용을 회복시켜 주는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04년 502건 ▲2005년 2천545건 ▲2006년 4천278건 ▲2007년 4천720건으로 최근 4년간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 또한 ▲2004년 315건 ▲2005년 1천244건 ▲2006년 7천922건 ▲2007년 9천934건으로, 2005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을 포함한 전라·제주지역의 개인파산 신청자는 2005년 2천197명에서 2007년 1만6천411명으로 7배 이상 급증했고, 면책사건 또한 2천195명에서 1만6천406명으로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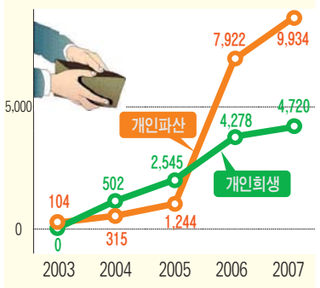
법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3만33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4%의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1만5천892명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라·제주지역에서 5만여명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다.

파산자에 대해 청산 후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같은 기간 780건에서 7천645건으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과거 법원은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상대적으로 면책허가를 쉽게 내준 경향이 있었지만, 자칫 무차별 채무면탈을 대량으로 허용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기 파산자 발생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법 개인회생·파산 신청 건수



수확 끝난 들녘 미나리 파종

벼 수확이 끝나 황량한 들판에 한겨울 진미인 미나리 파종이 한창이다. 14일 낮 광주시 남구 승촌동 마을 주민들이 수확이 끝난 논에 물을 가득 채운 채 미나리를 파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는 조용한 도시

환경 소음 10개 도시 중 가장 낮아

광주시내의 소음 정도가 10개 도시 중 가장 조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이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로변 592개 지점의 소음환경기준을 측정한 결과, 광주의 주·야간 소음 평균은 67.4dB(데시벨), 62.6dB로 10개 대도시중 소음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주를 포함한 서울·부산·대구·인천·수원·춘천·원주·청주·전주 등 10개 도시 주간 소음 평균 71.2dB, 야간 소음 평균 67.5dB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전국에서 환경 소음이 가장 심한 곳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 호텔 앞으로 주·야간 환경소음이 77.5dB, 76.2dB로 주·야간 모두 소음 기준 중 가장 높은 수치인 공업지역의 소음기준(75dB)을 초과했다. 광주지역에서 소음이 가장 심한 곳은 72.7dB를 기록한 광주시 북구 파워디지털 007 앞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리공단의 소음측정 지역인 북구 일곡동 일곡중학교 앞과 동구 산수동 새마을금고 앞은 주간 환경 소음이 68.4dB(야간 63.0dB), 67.6db(61.7dB)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상 도로변 주거지역의 주간 소음기준은 65dB(야간 55dB) ▲상업지역 70dB(〃 60dB) ▲공업지역 75dB(〃 7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30대

집중단속 이후 광주 첫 입건

최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악성 댓글)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 금융기관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이후 경찰의 인터넷 악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된 이후 광주지역에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서부경찰은 14일 서울의 모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A모(35)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초 광주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모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광주에 있는 산하 금융기관이 수십 억원에 달하는 돈을 부정대출해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여섯 차례에 걸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광주의 한 컨설팅 회사 직원인 A씨는 이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던 중 모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이 게재된 것을 확인한 뒤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최진실 모방 자살' 광주 하루 3건

탤런트 고 최진실씨의 자살을 모방한 듯한 자살사건이 광주에서 하루동안 3건이 잇따라 발생해 이른바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A아파트에 사는 방모(22)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동생(14)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평소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해 왔으며 3개월 전에도 한 차례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모 빌라에 사는 이모(27)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이씨가 평소 사채 등 빚 때문에 괴로워 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자살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이날 오전 6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광주 C대학 학생 박모(여·23)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함께 투숙 중인 친구가 발견했다. 경찰은 평소 박씨가 자신의 외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면세용 담배 69만갑 국내 유통 50대 기소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박민표)은 면세용 담배 69만갑을 빼돌려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지방세법 위반)로 모 무역업체 대표 문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KT&G 목포지점에서 산 면세용 담배 296만 8천940갑 가운데 68만 4천930갑을 국내에 유통해 담배 소비세 등 지방세 6억 5천856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용 담배 부정유통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검찰은 다른 면세 물품을 사들이는 무역업자의 비리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백종헌 프라임회장 영장

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노승권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중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회장은 계열사인 S업체 대표 임모(53) 사장에게 지난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T업체에 S사 자금 183억여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회장은 프라임그룹이 동아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변형된 형태의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수백여억원 규모의 배임과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나원참 〈7627〉 김종두

"투자금 안 준다" 동업자 외제차 부숴

쌍나팔

○…공동 투자금으로 차린 성인 PC게임방이 폐업하자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동업자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부순 20대가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14일 동업자의 외제승용차를 파손한 임모(29)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5월 20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S오락실 앞길에 주차된 동업자 K(39)씨의 외제 승용차 앞 유리창과 트렁크를 파손하는 등 시가 1천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2년여 전 고씨와 성인 PC게임방을 동업하면서 1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경찰에서 "동업자 K씨가 투자금은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또 다른 오락실을 개업 운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었다"고 진술.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